大巡 宗旨의 理解

鄭 大 珍*

目 次

Ⅰ. 序言
Ⅱ. 大巡思想과 宗旨
Ⅲ. 宗旨의 內容
1. 天地組版으로서의 陰陽合德
2. 倫理道德的 紀綱으로서의 神人調化
3. 社會生活로서의 解冤相生
4. 理想世界로서의 道通眞境
Ⅳ. 大巡宗旨의 思想的 特質
1. 後天開闢의 思想
2. 人間尊重의 思想
3. 統一指向의 思想
Ⅴ. 結言

Ⅰ. 序 言

구천상제의 강세로 인해 선포된 대순진리는 오늘날 종단 대순진리회의 창설을 계기로 하여 그 연구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겠다. 하나의 종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지(宗旨)와 신조(信條) 그리고 목적(目的)이 있어야만 하는데 구천상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대순종단은 역사에 있어서 이미 그 요소를 갖추고 있다. 1925년(을축년)의 종단조직에 의하면, 도주(道主) 조정산(趙鼎山)은 구천상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종지로서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정하며, 안심(安心)안신(安身)경천(敬天)수도(修道)의 사강령(四綱領)과 성경신(誠敬信)의 삼요체(三要諦)를 신조로 삼고,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개조(人間改造)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

* 대진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

建設) 세계개벽(世界開闢)을 목적으로 삼아 교리체계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종지는 대순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상이 집약되어 있으며, 신조는 실천하는 방법을 말하고 목적은 곧 그 종교의 이념이 된다. 이에 따라 대순진리를 연구하는 방향은 종지와 신조 그리고 목적을 떠나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하나의 대명제(大命題)가 설정된 셈이다.

본 고는 대순사상을 연구하는 단계에 있어서 먼저 종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종지가 대순사상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그 구체적 내용 그리고 하나의 사상으로서 지니는 특질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간행한 바가 있는 대순논총의 내용에서 특히 음양합덕과 신인조화 그리고 해원상생 도통진경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토대로 한 그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에도 의의를 두고 있다.

Ⅱ. 대순사상(大巡思想)과 종지(宗旨)

대순사상은 구천상제의 강세로부터 비롯된다. 『전경(典經)』에 의하면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교운 1장 9절)고 말씀하신 데서 알 수 있듯이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가 혼란한 선천의 현실을 널리 구제하기 위해 구천(九天)의 상제께서 강세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도(大道)의 진리(眞理)가 선포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대순사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순사상은 비록 한국에서부터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한민족(韓民族)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를 포함하고 나아가 전 우주의 영역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전대

미문(前代未聞)의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속에는 오늘날 종교의 영역에서 다루는 신관(神觀)과 인간관(人間觀) 그리고 세계관(世界觀)에 있어서의 새로운 이정표를 담고 있으며 올바른 종교적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다.

인간이 경배하는 신에 대한 문제, 이에 상대적으로 이루어야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의 문제,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이상세계(理想世界)에 대한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하지만 그 진정한 해답은 오늘날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민족과 지방을 달리하는 인간의 삶에서 그 생활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이 형성되고 이것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여 그것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교법 3장 23절 참조) 구천상제께서 선포하신 대순진리는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놓고 어떠한 반목과 쟁투가 없는 도화낙원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국 문화의 정수가 한데 어우러진 후천의 문명을 지향한다는 데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 인류가 이때까지 살아온 세계를 선천(先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살아야 될 세계가 후천(後天)이고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구천상제의 역사(役事)이다. 구천상제께서 행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는 후천의 문명을 이룩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며 대전제(大前提)가 되는 것이다.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한다면 상극(相克)과 상생(相生)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선천이 상극에 지배된 세계라면 후천은 상생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선천의 모든 문제는 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며, 이때 상극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반목 쟁투하는 관계를 규정하는 말이다. 반대로 상생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잘 되게 해주고 남이 잘 되므로서 나도 잘 될 수 있는 관계를 뜻한다. 선천의 참혹한 현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고야마는 상극의 원리에 기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원(冤)은 인류를 진멸지경에 다다르게 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를 구제하기 위한 강세하신 구천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다시는 원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의 세계를 예비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후천 상생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상생은 대평화의 이념이고 이상세계 건설의 근본 원리인 것이다. 대순

사상은 바로 이러한 상생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후천의 세계를 지향하는 진리임을 말해준다.

상생으로 이룩된 후천세계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선천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자연환경부터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이므로 항상 온화한 마음가짐이 있게되고 또 무한정 풍요로운 사회이므로 서로 많이 가지기 위해 싸우는 일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다. 세계가 한 가족이 되며 언어도 통일되고 종교도 통일된 대화합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그 사상도 선천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선천에서 전개되어 나왔던 모든 사상은 그 민족의 특수성과 지역환경의 차이 또는 계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가 그렇고, 개인주의 가족주의 전체주의 등이 그렇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종교는 인류를 공생(共生) 공존(共存)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로 피비린내나는 싸움끝에는 멸망만이 남게 되므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가르침이 지방을 달리하여 대두되었던 것이다. 중국의 유교나 인도의 불교, 서양의 기독교사상은 모두 선천의 인류를 공생하게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지만 이 역시 상극에 지배된 선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인 만큼 인류전체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만큼 상극의 원리는 성인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선천세상의 법칙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선천의 사상은 한마디로 상극에 지배된 사상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해 대순사상은 상생이 지배하는 후천의 사상임을 말하고 있다.

대순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곧 후천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후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법이 서 있으며 어떻게 생활하는 세계인가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대순사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통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신관(神觀) 인간관(人間觀) 세계관(世界觀)등은 모두 후천의 이념이 들어 있는 것으로 그 특징이 발견된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을 집약하고 또 이를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개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제창된 것이 바로 종지(宗旨)인 것이다.

종지는 그 사상이 제기하는 가장 으뜸가는 요지(要旨)이며 가르침이다. 모

든 종교에는 저마다의 종지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석하고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리가 형성되며 수많은 책이 나오게 된다. 가장 으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므로 많은 말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인(仁), 자비(慈悲), 박애(博愛)등은 기존의 종교가 주창하는 종지(宗旨)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순사상에서 종지로 삼고 있는 것도 하나의 짤막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6자로 되어 있으며, 다른 종교의 종지보다는 글자 수가 많은 편이지만 그만큼 넓은 범위를 지니고 있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천상제께서 천지인 삼계(三界)를 대순(大巡)한 결과 내놓은 진리를 말하므로 인간을 포함한 천지사물에 두루 해당되는 가르침인 것이다. 그 내용은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표현되며 이 16자에 대한 풀이가 말하자면 대순사상의 줄거리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종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곧 대순사상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수 있으며 이로써 종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대순사상의 연구에 있어서 종지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개념이 된다. 종지는 곧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해석을 통해 그 이념이 드러난다.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은 오늘날의 수도인들에게 주어진 일대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연구의 방향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천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후천의 세계를 지향하는 개념으로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종지의 내용을 후천사상(後天思想)에 입각하여 정확히 이해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게되는 것이다.

Ⅲ. 宗旨의 內容

1. 天地組版으로서의 陰陽合德

종지 16자 가운데 제일먼저 이해되어야 할 부분은 음양합덕(陰陽合德)에 관한 것이다. 음양합덕의 의미를 단적으로 지적한다면 그것은 천지(天地)조

판(組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리(原理)이며 짜여진 틀인 것이다. 과거 선천(先天)의 세계는 상극(相克)의 원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활해 온 인류도 서로 반목 쟁투하면서 악(惡)을 자행해 나왔다. 인류가 사용하는 재화(財貨)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로 많이 가지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다. 자연의 재해가 심각하여 죽는 사람이 많으며, 땅도 옥토가 있는가 하면 박토가 있어 곡식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 데가 있다. 약육강식(弱肉强食)이 지배하는 세상이며, 극렬한 원(冤)이 발생한 세상이었다. 그리하여 선천은 구천상제의 강세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극한 상황의 진멸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다. 구천상제께서 강세하여 행하신 천지공사(天地公事)는 이러한 선천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천지공사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후천세계는 상극(相克)이 아닌 상생(相生)의 원리가 지배하며, 유한한 세계가 아닌 무한한 풍요로움의 세계인 것이다. 자연재해도 없고 사람이 늙어서 죽는 일도 없으며, 풍요롭기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세계이다. 곡식도 한번만 심으면 그 다음 해에 계속해서 새싹이 돋아 그저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되는 땅이며, 갖가지 과일이 가꾸지 않아도 계절따라 열려서 사람이 따먹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세계이다. 이 후천세계를 이루는 근본틀이며 바탕이 되는 이념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음양합덕이다. 그래서 천지조판(天地組版)으로서의 음양합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음양합덕으로 이루어 진 세계를 후천이라고 한다. 음양합덕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대립과 투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음양이란 하나의 사물이 지니는 두가지 측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음과 양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동일한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틀이기도 하다. 음양을 하나의 사물로서 말하면 손바닥은 음 손등은 양, 서책의 표지는 양 내면은 음, 청천(晴天)은 양 우천(雨天)은 음이며, 서로 다른 사물로서 말하면 하늘은 양 땅은 음, 해는 양 달은 음,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다. 어느 것 하나 음양 아닌 것이 없으며 모든 사물에서 음과 양의 요소를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이 음양의 보편성이다. 그리고 음양은 서로 '대대관계(對待關係)'에

놓여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필요로 하는 관계라는 것이 음양론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음양론에 입각해서 선천(先天)은 상극세상이라 음양이 분덕(分德)하여 지내 왔다면 후천(後天)은 상생으로 이루어지므로 음양이 합덕(合德)하여 무궁한 조화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오늘날 남녀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노사간의 대립 그리고 종교와 과학의 대립 나아가서 동양과 서양의 대립으로까지 치닫는 투쟁의 양상은 모두가 음양이 분덕(分德)된 결과이다. 자기와 다르고 체질이 틀리다고 해서 불신하며 무시하는 태도는 급기야 사회 구성원들간의 대립과 투쟁을 야기시키고 동·서양의 문화적인 교류에서도 불안한 대립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장점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이 세계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원리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의 평화는 물론이며 인류의 복된 삶을 위해서라도 음양합덕(陰陽合德)은 꼭 필요한 사고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 음양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나아가 음과 양의 덕이 진정으로 합하여 이루어내는 경지가 있음을 깨닫는데서 그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

음양합덕이란 음양이 합해서 무한한 덕을 내려주는 것으로 이때의 덕은 선덕(善德)을 가리킨다. 그러기 위해서 음양은 각각 정음(正陰)정양(正陽)이어야 하며 일음(一陰)일양(一陽)이어야 한다. 덕(德)은 득(得)으로도 해석되는데 '상생'이라고 하는 덕을 무한히 창조해서 발생시키므로 모든 만물을 생(生)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 세상은 무한한 혜택을 주는 풍요로운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자연환경이 그렇고 금은 보화가 만발하며 물자가 풍부하여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이 허영과 투기 음해 질투가 없게 되며, 인정과 양심으로 서로 상합(相合)하게 되고 화평(和平)한 세상으로 전개해 나간다. 부부도 음양이므로 상생의 덕으로 만나서 그 금슬이 좋기가 그지 없으며, 거기에 태어나는 아이도 저마다 건강하고 예쁘며 지혜도 총명하게 된다.

상극세상에서 선악(善惡)이 공존했다면 상생의 후천세상은 선으로써만 존재하는 세상이다. 전경에 보면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

랴,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 (교법 2장 55절)라고 하여 상제께서 짜 놓으신 후천세상은 오로지 선으로서만 존재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덕이 베풀어지므로서 인간에게 무한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게 되는 것이다.

음양합덕이 이루어졌을 때 그 혜택을 누리는 주 대상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인간을 위한 환경이 베풀어 지는 것도 음양합덕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천지를 음양에 비유했을 때 천지가 사람을 낳았으므로 천지의 합덕은 인간에게 무한한 풍요로움을 제공한다. 선천에서는 음양이 합덕되지 못하였으므로 인간이 천지(天地)에 의존해서 살아왔다면 천지가 합덕하여 덕을 베풀때는 그 모든 혜택을 인간이 받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이 떠받들어지고 사람이 귀해지는 세상이 곧 음양합덕의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경에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장 56절)고 하여 인존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천지가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온갖 사물도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되니 이를 인존(人尊)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인존시대는 신(神)이 사람에게 봉(封)해져서 사람이 신의 권위를 행사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는 신과 인간이 서로 음양의 관계에 놓여져 있으므로 음양합덕이 되면 사람과 신이 또한 합덕이 되어 사람이 신의 조화를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도 완전하고 신도 완전하여서 어느 것 하나 빠트릴 수 없이 존귀한 것은 모두 신과 사람이 음양합덕을 이룰때 가능한 현상이다. 사람이 곧 신이고 신이 곧 사람인 세상을 맞이하여 온갖 사물과 천지와 신이 사람을 떠받들어 나갈 때 진정한 인존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음양합덕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도통(道通)이요, 영통(靈通)이다. 이 때가 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귀해서 누구나 사람을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상극적인 현실에서 생각만해도 가슴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인존의 실현이야 말로 음양합덕의 주된 실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양합덕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 구천상제께서는 9년간의 천지공사를 단행하여 신천지(新天地)를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2. 倫理道德的 紀綱으로서의 神人調化

음양합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에서 모든 질서를 통제해 나가는 규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신인조화(神人調化)로 대변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신이란 천지 사물 하나하나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주 기관(機關)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모든 사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신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신은 특정 사물 하나하나를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근본이라고 볼 때 하나의 사물에 깃들어 있는 신은 오직 그 사물에 대해서만이 의미를 가지며 그 자체로서는 완전한 것이므로 고정 불변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물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아주 큰 신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아주 작은 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신의 세계는 그 위계질서가 아주 엄격하여 서로의 자리를 침범할 수 없으며 지오지밀(至奧至密)하여 조금의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이 천지에 가득 차 있고 진리에 지극하므로 모든 질서를 이루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순진리에 있어서 인간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인존(人尊)'이라는 말로서 표현되어진다. 인존은 천존과 지존에 대비되는 말로서 그 궁극적 가치는 신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 천존이란 신의 존재가 '하늘'이라는 경계에 머물면서 그 역사(役事)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지존이란 신의 존재가 땅이라는 경계에 머물면서 역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인존이라고 하게 되면 신의 존재가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써 인간의 가치가 최고도로 실현되는 상태가 된다. 여기에 마음을 부지런히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인존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말한 것이다. 신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한다. 인간의 마음은 이를 깨달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여야 하며 옳은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 신을 가려서 수용하는 것이라야 한다. 인간의 가치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다양한 신을 받아들여서 그 선하고 악한 것을 가린 뒤 선을 지향하고 선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신이

드나드는 통로이므로 그러한 신이 응할 수 있게끔 바르게 다스리고 수양해 나가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존이 되면 신은 오로지 사람을 섬기고 받드는 것이 자신의 임무가 되며 따라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바라는대로 다 이루어지게끔 해준다. 「천지 무일월 공각(天地無日月空殼) 일월 무지인 허영(日月無知人虛影)」 (천지가 일월이 없으면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일월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시 21절) 이라고 하였듯이 천지와 더불어 인간이 지니는 가치가 그만큼 위대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신인조화가 지향하는 종지로서의 가치는 앞서 말한 신의 위상과 인간의 위상이 결합되어 아주 엄격한 체계와 질서가 형성됨을 말하는데 있다. 선천의 현실은 상극이 지배하는 세계이므로 내가 잘 되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을 누르고 해쳐야 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니 이로 인해 윤리도덕도 무너지고 사회질서도 부조리 속에 타락하게 되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본래 성인(聖人)이 하늘로부터 받아내려서 인류에게 가르친 것인데 선천의 상극원리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윤리도덕을 만들어 내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후천은 상생이 지배하고 음양합덕이 된 세계이므로 윤리도덕에 있어서도 새로운 질서가 서게 된다. 이는 신과 인간이 서로 음양의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調化)되어 이루어지며 아주 엄격하고 공평한 질서가 확립됨을 말한다. 즉 신은 음, 인간은 양이므로 후천의 음양합덕이 되면 신과 인간도 서로 합본(合本) 합덕(合德)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천지만물이 음양아닌 것이 없는데 구천상제께서 음양합덕의 원리로 신천지(新天地)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음양이 서로 합덕하여 새로운 생육(生育)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과 인간도 합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천지공사의 사상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면 음양합덕은 신인조화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조화(調化)라는 개념은 조화(調和)라고 할 때의 '고를 조'자(字)와 조화(造化)라고 할 때의 '될 화'자(字)가 합성하여 이루어진 글자이다. '고르다'는 개념은 모두가 동등 동권하게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된다'는 것은 제각각이 자기 한도대로 다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과 인간의 상대적 관

계가 절대세계에서 만나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화(調化)가 모두 일정한 모습을 가지게 됨을 말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양한 인간 사물이 제각기의 한도(限度)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도대로 신(神)과 결합하여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 자체의 완성의 경지를 말한다. 전경에 「양이 적은 자에게 과중하게 주면 배가 터질 것이고 양이 큰 자에게 적게 주면 배가 고플터이니 각자의 기국(器局)에 맞추어 주리라」 (교법 2장 54절)고 한 것처럼 각자의 기국에 꼭 맞는 결합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완성된 새로운 개체가 제각각이 모여서 하나의 큰 질서와 체계를 이루게되니 곧 신의 질서요 신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신인조화로 탄생한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인존(人尊)은 신의 권위와 능력을 발휘하는 신인(神人)이다. 인간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그 인간에 응한 신의 조화(造化)에 의해 다 이룩될 수 있다. 신인조화의 시대에 신이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집이며 주인인 인간은 그 신으로부터 떠받들어지는 가치를 지니게 되니 인간의 행사범위는 무궁무진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신인이 조화된 세계에서 윤리도덕은 새롭게 정립된다. 즉 후천은 신이 인간을 집으로 삼아 합본(合本)이 되어서 이루는 세계이므로 신의 질서와 체계가 그대로 인간세상에 베풀어지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누구를 감히 속인다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확고한 신의 질서에 어긋나서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말한다. 공자의 논어(論語)에도 보면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인간사어 천청약뢰 암실기심 신목여전(人間私語 天聽若雷 暗室欺心 神目如電; 사람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듣는 것은 우뢰와 같으며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여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의 감시와 수찰이 아주 엄격해서 감히 속일 수가 없고 어길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신인조화의 시대란 바로 이것이 보편화된 것이며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경지속에서 생활해 나아가는 때다. 따라서 어떠한 사곡(私曲)함도 행해질 수 없고 아주 엄격한 윤리도덕이 세워질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전경에 보면 "지금은 신명 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

운이 돌아 닥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교법 3장 5절)고 하여 신의 엄격함과 지공(至公)무사(無私)함을 말하고 있다. 신명시대로서 표현되는 후천은 신과 인간이 조화되어 인사의 모든 일이 신도(神道)의 권위로서 행해지는 세상이다. 따라서 아주 큰 일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신이 개입하지 않는 데가 없으며 또한 이를 감독하고 수찰하면서 오로지 바른 것만을 지켜나가게 된다.(大大細細天地鬼神垂察 ; 공사 3장 40절)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신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과 불의가 없는 세상, 밝고 투명한 세계가 이룩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인조화(神人調化)의 내용인 것이다.

3. 社會生活로서의 解冤相生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음양합덕과 신인조화가 된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생활해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며 반목 쟁투가 없는 생활은 해원상생이 실천되는 사회에서 가능하다. 구천상제께서 이룩하신 새로운 천지에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므로 어떠한 원(冤)도 남아 있지 않은 세상이다. 그래서 오직 남이 잘되게끔만 마음을 쓰게 되니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고 그렇게 생활해나가는 모습을 일컬어 해원상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상극적(相剋的) 현실에서 대순진리를 사회적으로 실천해나가고 강조해야만 할 슬로건은 다름아닌 '해원상생'에서 찾을 수 있다 하겠다.

'해원'이라고 할 때 원(冤)의 의미는 모든 사물이나 인간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지니고 있으면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생기는 감정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상대로 인해 발생한 원망의 감정으로서의 '원(冤)'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루지 못한 소망도 포함된다. 이러한 원망의 감정을 해소하고 자기 소원을 다 이루는 것이 해원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

구천 상제께서 인세에 강세하셔서 선천의 세상이 진멸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진단하신 내용은 무엇보다도 먼저 원(冤)의 점철(點綴)로 인한 것이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옛날에서부터 쌓여져 온 것이며 결국에는 인간을

파멸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 인류의 원의 시작은 정권쟁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양역사의 첫머리에 기록되는 요임금의 아들 단주가 그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데서 품게 된 원(冤)이 그 왕위를 물려받은 순을 창오땅에서 죽게 만들었고, 그러한 정권쟁탈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선천세상을 원으로 가득차게 만들고 말았다. 이렇게 가득찬 원은 마침내 인간을 파멸의 지경으로까지 몰고 가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천지신명의 하소연으로 구천에 계시는 상제께서 직접 인세에 내려오시게 되었던 것이다. 구천상제께서 단행하신 천지공사는 해원을 위주로 하고 나아가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며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천지를 개벽하여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다.(공사 3장 5절 참조) 이렇게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에는 어떠한 투쟁도 없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해원은 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상생(相生)의 의미는 상극과 반대되는 것으로 해원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의 생활원리이다. 하늘과 땅도 서로 상생으로서 만나고 물과 불도 서로 상생으로 만나며 사람과 자연도 상생으로 만나는 등 모든 만물이 서로 상생으로 만나는 가운데 인간도 서로를 상생으로만 대해 나갈 때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상생(相生)이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잘되게 해주는 관계를 말한다. 누구를 근본적으로 미워하지 않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오직 남을 잘 되게 하여야만 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상대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대상이며, 나를 잘되게끔 해주는 관계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안보면 보고 싶으며 무척이나 동경하면서 서로를 위해 무한히 덕을 베풀어 나간다.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가 잘되고 출세하여야만 따라서 내가 잘되는 관계이다. 이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를 해쳐야만 하는 상극적인 관계와는 정 반대의 개념이 된다.

상생(相生)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공생(共生)이 있다. 공생이란 유한하고 부족한 환경을 전제하고 그 속에서 인류가 더불어 살아 나가기 위해서 미운 사람끼리도 같이 섞여 살면서 제한된 자원을 나눠가지자는 개념이다. 상생

은 이와 달리 음양합덕의 천지조판으로 인해 빚어지는 무한히 풍요로운 환경을 이루며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그 혜택을 베풀어 준다. 자연이 베풀어 주는 아주 풍요로운 환경속에서 그 영원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간은 서로 많이 가지고자 싸울 필요가 없으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오직 서로 잘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위해 모든 덕을 베풀어 주며 또한 그 아이를 무한히 동경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누구나 서로를 위해 애써 나갈 때 그 세계는 상생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생은 후천세상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모든 사물을 음양(陰陽)의 개념으로써 규정한다면 이러한 음양이 서로 상생으로 합덕된 세계가 후천이다. 즉 음양합덕이 이루어 진 것을 말하며 음양합덕은 상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상생의 이념이란 천지만물이 모두 서로 상생으로서 존재하면서 무한한 혜택을 만들어 내는 가운데 사람들도 그 혜택을 입으며 오직 서로를 잘되게끔만 하는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해원상생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데에는 크게 두가지 조목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척을 짓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척은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게 되므로 발생하며 이는 쌍방이 모두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크게는 남을 살해하거나 해를 입힌 것이 되지만 작게는 사소한 일에 남을 섭섭하게 하는 것도 척이 될 수 있다. 즉 남의 호의를 무시한다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또는 누구를 편애(偏愛)하거나 편오(偏惡)한다든지 하여도 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척이 맺히게 되면 어느 한쪽이 풀려고 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폐해(弊害)를 서로가 입게 된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 이전에 반드시 자신의 허물을 살펴서 뉘우칠 때 상대가 품은 원한도 풀리는 것이며 이어서 서로가 해원하게 되어 상생의 관계가 수립되는 것이다. 남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나도 상대에게 피해를 입힐려고 한다면 이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피로 씻는 것과 같아진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척이 풀리지 않고 원한이 점철되어 결국 파멸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구천상제께서는 대순하신 진리로서 먼저 척을 푸는 해원상생의 공사를 주도하셨던 것이며, 이렇게 원을 푸는 것으로 지상선경을 달성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모든 척을 풀고 후천선경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다. 상제께서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 (교법 1장 2절)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에게 베푸는 덕(德)이 중요하다. 상대에게 베풀은 덕만큼 나 또한 잘된다는 것이니, 구태여 나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여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곧 내가 잘되는 길이며,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한 해원상생의 대표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理想世界로서의 道通眞境

음양합덕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신인조화의 엄격한 기강(紀綱)을 세우고 해원상생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인류가 맞이하는 하나의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를 대순사상에서는 도통진경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있다. 도통진경에 대한 해석은 실상 종지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앞서 해석한 종지의 내용을 모두 귀결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한데 모아 이룩한 최종 도달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하나의 세계관이며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너도 나도 모두 도통을 해서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이상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도통(道通)이라 함은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 있어서 저마다 살아가는 이치가 다 있는 법인데 이것을 도(道)라고 하고 이를 환히 꿰뚫어 알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즉 사람들 모두가 천지 우주의 모든 이치를 환히 알기 때문에 밝고 바르며 투명한 세상이 되어 어떠한 부정(不正)과 불의(不義)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진경(眞境)이라 함은 그 진(眞)자(字)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일시적이고 가식적(假飾的)인 현상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되며 진정으로 바른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경(境)이라 함은 하나의 세계이며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도통을 이룩한 뒤에 맞이하는 참되고 밝은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즉 음양합덕으로 이루어진 무한히 풍요로운 세

계에서 신인조화로 인해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이 신명의 조화로 이루어지고, 아주 투명하고 밝아서 어떠한 부정과 불의도 없는 윤리도덕적 질서가 확고한 세계가 되며, 상호간의 감정이 다 풀어져서 오직 서로를 동경하고 잘되게끔만 덕을 베풀어가는 그러한 세계이다. 이것은 진리로서의 도(道)가 온 천하에 두루 다 통해서 인간이 바라는 참되고 진실한 이상세계가 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이를 대순종지에서는 도통진경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때의 도(道)는 하나의 보편적 진리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특히 구천상제께서 내 놓으신 대순진리를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오직 상제의 권능으로서만이 가능한 천지공사이므로 대순종지를 표방한다는 것은 대순진리로서의 도(道)를 만 천하에 실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정신문화를 대변하는 종교적 경지가 고도로 성숙되고 물질문화를 이끌어가는 과학문명이 또한 고도로 성숙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야 말로 이상사회를 이루는 기본 요건이 된다. 이러한 사회는 무극대운(無極大運)이 펼쳐지는 곳이며 대순종지에서 볼 때 도통진경의 교의가 실현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물질적인 진리와 정신적인 진리도 모두 하나의 도(道)에 근원한 것이며 이것이 두루 다 통하는 세계로서 도통진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욕구도 정화되어 해원상생으로 서로 관계하므로 어떠한 부조리적 현상도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욕구의 근원이 되는 환경적 요인도 음양합덕으로 베풀어지고 또한 윤리도덕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인조화가 이루어짐으로서 현실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도통진경의 세계에서는 종교간의 마찰도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통합적 이념을 창출해 낸다. 그것은 기존의 종교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한계와 그것을 초극(超克)하는 통합적 이념이 도통진경의 교의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교의 역사적 한계란 그 사상적 본질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추이에 따라 그릇되게 해석되거나 또는 사회적 폐단을 낳게 된 것을 말한다. 이는 하나의 독선적 집단의식을 생겨나게 하여서 서로 다른 종교와 부딪힐 때는 융합될 수 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백성을 교화하고 가르치고자 탄생한 것이므로 그 근원적 진리성은 다를 수가 없다. 전경에 보면 『西有大聖人曰西學 東有大聖人曰東學 都是敎民化

民 : 서쪽에 대성인이 있으니 가로되 서학이라 하고 동쪽에 대성인이 있으니 동학이라고 한다. 모두가 다 백성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것이다.(행록5장 38절)』 라고 하였듯이 비록 동·서의 지역적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로서의 도(道)는 다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느 종교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통이 주어진 적이 없었으나, 구천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는 마음을 닦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도통을 주는 원만한 경지를 내 놓으심으로 여기에 다양한 종교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세계의 종교적 새지평을 열어나가게 된 것이다.

전경에는 도통진경의 세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대표적으로 나온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예시 81절)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도통진경의 세계는 크게 세가지 항목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새로운 인간의 출현과 단일화된 세계공간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로 무한히 펼쳐지는 물질적 풍요와 자연환경의 이상적 상태를 말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종교이념적인 측면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들 수 있다.

천존(天尊)과도 상대되고 지존(地尊)과도 상대되는 인존의 의미는 인간에게 하나의 신격(神格)을 부여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신격(神格)을 지닌 인간이 후천에 이르러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곧 도통진경의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도통진경의 전체세계를 이끌어 나가는데에는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수단으로서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그 세계의 신비로움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관계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국의 이익을 무시하는 현상은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며 마

치 한 가족이 모여서 지내듯이 전 세계가 화평(和平)한 하나의 일가(一家)를 이루게 될 것이다. 거리상으로도 멀고 가까운 것이 없어지므로 마음대로 왕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이 도통진경에 있어서는 극치에 이르러 인간의 생활에 무한한 편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도통진경은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시대이기도 하므로 곧 신(神)의 문명이 창출되어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문명의 극치이며 과학의 완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편의성은 극대화되는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의 물질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한 것은 의식주(衣食住)에 해당하는 제반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도통진경의 세계에서는 무한정 풍요로운 혜택이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음양합덕(陰陽合德)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는 인간에게 무한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새로운 세계의 구성원리이기 때문이다. 도통진경에서는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는 세상이며 주루보각 십만간으로 모두의 집이 마련되며 계절의 변화에 상관없이 의식(衣食)이 풍족한 세상이다. 따라서 이때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물질의 소유문제로 인해 서로 싸우는 일이 없으며 시기와 질투가 없는 화평한 세상이 건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있어서도 도통진경에서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도통진경에서는 수·화·풍(水火風)의 삼재를 겪지 않는 아주 온화한 자연을 맞이하게 된다. 이상적인 기후가 펼쳐지고 자연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사시사철이 봄과 같이 따사로운 자연환경을 누리고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地上仙境)이다. 이러한 세계를 이루고 또한 인간이 누려나가는 세상을 도통진경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극복이 된 세계를 말하며 나아가 종교와 이념에 대해서도 오늘날처럼 혼란스럽지 않은 통일된 체계를 구가한다고 볼 수 있다. 도통진경의 필요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교의 시대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종교간의 대립이 인류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국가간의 이념 대립도 국제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통일적인 양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세계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여기에 도통진경은 인류에게 있어서 종교와 이념의 통일적인 모습도 안겨줄 것이 기대된다. 그것은 종교도 하나의 도(道)가 있으며 여러 가지 이념도 그 나름대로의 도(道)가 있기 때문에 도통진경이 이루어 지면 결국 종교와 이념에 있어서도 하나의 통일적인 모습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도통진경은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로 인해 베풀어지는 후천세계를 말하며, 이는 모두가 도통(道通)을 한 세상으로서 어떤 이치나 진리에도 막힘이 없이 두루 다 통해서 살아가는 세계이다. 그리하여 한없이 밝고 투명한 세상에서 무한한 풍요와 혜택을 누리면서 인간 극치의 행복을 구가하는 모습이 바로 도통진경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종지가 지니는 사상적 특질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하겠다.

Ⅳ. 大巡宗旨의 特質

1. 後天開闢의 思想

대순사상의 종지가 지니는 사상적 특질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후천개벽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후천(後天)이란 구천상제님의 천지공사로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천지, 새로운 세상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이 때까지 살아온 세상은 선천(先天)이다. 선천과 후천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상극(相克)과 상생(相生)에 있다. 상극은 서로 잘되기 위해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전쟁과 침탈이 벌어진다. 반대로 상생은 남을 잘되게 함으로써 자기도 잘 될 수 있다는 사상으로 오직 서로를 위해 주고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상극과 상생의 이러한 차이는 선천과 후천을 가름하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선천세상에서 상극이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인간을 둘러 싼 환경에 있다. 즉 인간이 두루 쓰기에 부족한 자원과 한정된 재화 그리고 인간의 한정된 수명,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나눠먹기 보다는 서로 많이 가질려고 하고 상대를 해칠려

고 하는 행동을 유발한다. 선천에서 발생한 원(冤)은 이렇게 서로 침탈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망의 감정이며, 유한한 환경 속에서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인간의 무한한 바램을 뜻한다. 기존의 종교가 추구해 왔던 이념은 모두 선천의 한계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 사상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더불어 살게끔 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생했던 것이다.

기존의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념이라고 하면 곧 사랑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말하는 사랑이란 곧 인(仁)이며 자비(慈悲)이고 박애(博愛)이다. 풀어서 말하면 모두가 한 몸이라는 의식에서 남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먹을 것이 하나 있을 때 둘이서 똑같이 나눠먹기 위해서는 남도 내 몸과 같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남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나눠먹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랑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오직 자기 몸밖에 모를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먹을 것을 독차지하여 상대가 굶어 죽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똑 같은 마음이고 한몸이라는 의식을 일깨워주어야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역대의 성인(聖人)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가르치고 무엇이든지 나누어 먹게 하여 결과적으로 공생(共生)하게끔 이끌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그 욕구불만은 항상 잠재되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비종교인은 물론이고 종교인들마저도 물욕에 치우쳐 비리와 반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종교간의 마찰과 상호 불이해의 상황은 거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어느 하나의 종교가 보편화되어 모든 인류가 공통된 가치관을 지니게 된다면 보다 덜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간의 무한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이상 선천의 한계상황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

구천상제께서 처결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는 이와 같은 선천의 한계상황을 진단하시고 새로운 천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셨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새로운 천지를 대변하는 후천(後天)의 세계는 선천의 세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그야말로 개벽된 세계임을 뜻한다. 열 개

(開) 열 벽(闢),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선천은 닫힌 세계이다. 기존의 종교에서 가르쳐 왔던 사랑의 이념도 후천의 세계에 이르면 인간의 정신에 다 녹아있으며 선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불만요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무한한 복락(福樂)의 세계이다. 이러한 후천개벽의 세계를 설명하고 생활해 나가는 새로운 이념이 바로 대순종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상제께서 말씀하신 개벽의 의미는 다음의 전경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엎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공사 1장 2절)

윗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개벽은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선천의 세계는 이미 낡은 집과 같아서 아무리 수리하고 보수한다 하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선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천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는 고유한 것이며 오직 구천상제가 아니면 안되는 절대권능의 역사(役事)이다.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후천은 선천의 지배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서 무궁한 선운(仙運)에 해당되는 것이다.

구천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가 개벽을 위주로 하는 독자적인 것이라면 대순종지가 내포하고 있는 이념은 선천의 종교사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한한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한 세계를 살아나갈 수 있는 후천사상(後天思想)이 바로 대순종지인 것이다.

대순종지의 내용 가운데 음양합덕은 선천의 환경을 뜯어 고친 무한한 풍요의 이념이다. 음양이 합덕하여 펼쳐내는 새로운 세계는 어떤 부족함도 없이, 인간이 바라는 모든 물질을 풍요롭게 생산해 낸다. 어떤 사물도 인간을 해치는 것이 없고 오직 인간을 받들어 주는 것 밖에 없다. 따라서 선천에서처럼 유한한 환경에서 서로 많이 가질려고 싸우는 것을 말리는 이념이 아니라 상대에게 보탬이 될려고 하고 베풀어줄려고 하는 것으로 사랑이 절로 우러나오는 사상이다. 이 때는 또 공생(共生)보다는 상생(相生)의 정신이 지배하므로 미운 상대끼리도 참고 지내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좋아하기만 하고 아껴주며 위해주는 생활이 지배한다. 이것은 선천의 원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며 후천의 세계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이념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신인조화에 있어서도 이는 선천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선천의 인간이 덜 성숙된 모습으로 신(神)에게 빌고 의지하여 지내왔다면, 후천에는 오히려 신을 인간의 몸에봉(封)하고 나아가 신을 부리는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함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신을 위한 종교가 아닌 인간을 위한 종교가 탄생하고 신의 조화(造化)를 인간이 마음대로 부려나가는 것에서 새로운 인간의 위상이 드러난다. 이는 선천에서와 같이 신에게 종속되는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받들어지는 인간을 말하므로 선천의 종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해원상생은 후천의 생활상을 대변한다. 어떠한 상대적 감정도 남아있지 않고 자기 바라는 바 소원을 다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으로도 그 목적이 다 달성되는 것을 말하므로 종교통일도 이룩된다. 부처가 되고 싶은 사람을 부처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해원상생이며, 성인군자(聖人君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어주며 신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신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곧 해원상생이다. 누구나 바라는 바를 다 성취하게끔 해주는 것이 해원이다. 어떤 욕심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冤)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원이 다 되었을 때 상호간에는 오직 서로를 잘되게 끔만 하게되므로 상생이 우러나오게 된다. 선천의 종교에서는 상극이 지배하였으므로 아무리 사랑을 강조하여도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근본적으

로 원을 쌓을 수 밖에 없었다면 후천의 종지로서 해원상생은 어떠한 원망도 남겨두지 않는 대평화의 이념으로 자리잡는 것이라하겠다.

도통진경은 후천의 세계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것은 선천의 종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원만하며 광대무변한 통일의 세계를 설명한다. 선천에도 진리로서의 도(道)는 있었다. 하지만 이 도는 없는 곳이 없으므로 제각각의 의미로서만 남았다고 보아야 한다. 불교도 불도(佛道)가 있으며 유교도 유도(儒道)가 있다. 이러한 제각각의 도가 하나의 세계속에서 원만하게 통(通)하는 경지는 오직 후천세계에서라야 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후천의 종지로서 제시되는 도통진경은 선천의 종지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서 개벽을 거친 뒤에 이룩되는 성질의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순종지의 특질은 후천개벽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천상제의 권능으로 이루어 진 천지공사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개벽공사이며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대순종지에서 표방되고 있는 것이다.

2. 人間尊重의 思想

후천은 또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을 위해 구성된 세계이기도 하다. 선천의 진멸지경은 모두 인간의 원(冤)이 점철된 결과이며 이 원을 해소하는 것에 의해 지상의 선경이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구천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는 해원(解冤)을 위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인간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인존(人尊)의 시대를 예비하고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구의 덩어리이다. 이 욕구 가운데에는 생리적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인간만이 가지는 욕구로서는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것이 중요하게 거론된다. 말하자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어하고 도덕적으로 선(善)을 추구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만이 품는 욕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는 종교가 나왔으며 제각각의 종교는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교(儒敎)같으면 도덕적인 선(善)을 이루기 위해 예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나갔으며 불교 같으면 정신적으로 깨달아서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게 한다.

선교(仙敎)는 물리적 수행을 통해 영생(永生)불사(不死)를 도모한다. 저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시대를 통해 이론을 설파해 나왔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오늘날 더욱 수많은 종교들이 난립하여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 때 기존의 종교가 지니는 기본적인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어떤 절대적인 힘을 빌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상정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것은 주로 신(神)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거의 신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 나가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믿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지나치게 신에 의존하다보면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신의 권위가 지배하는 폐쇄된 사회가 되기 쉽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을 최고의 것으로 알아 다른 신을 믿는 사람과 극렬하게 대립하는 양상도 보인다. 반대로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니 신을 무시하고 인간의 어떤 부조리한 행위도 정당화시키는 무질서한 사회를 조장하게 된다. 휴머니즘의 부정적인 경향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대변한다.

절대적인 존재를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있어서 양측의 폐단을 살펴볼 때 인간의 존재는 사실 많은 위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종교적 권위를 지니는 신(神)에 의해 지배되거나 인간상호간의 힘의 지배로 인간존중의 정신은 거의 말살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 과학기계에 의존하다보면 인간성이 상실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때 인간종중의 정신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진정한 인간존중의 정신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후천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순종지가 표방하고 있는 이념은 무엇보다도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인간상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주변세계와 생활원리 나아가 전체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원리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음양합덕(陰陽合德)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들러 싼 풍요로운 환경으로서 오로지 인간

을 위해 베풀어지는 자연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해치는 물건이란 단 하나도 없으며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 이 도삼이 어느날 동곡으로 상제를 찾아 뵈니 상제께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낱낱이 세어보라」 하시므로 그는 범·표범·이리·늑대로부터 모기·이·벼룩·빈대에 이르기까지 세어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후천에는 다 없애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공사 3장 8절)

후천은 바로 음양합덕된 세상이며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세계인 것이다. 신인조화(神人調化)에서는 신에 대한 인간의 위격이 선천의 세계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보여준다. 신에 대해 복종하기만 하는 인간이 아니며 신을 무시하는 인간도 아니다. 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의 권위를 지니며 신의 조화를 담아 신과 합치되는 신인(神人)을 말한다. 인간이 닦은 공덕에 따라 신의 조화(造化)가 응하는 그러한 신인관계가 후천에 이룩되는 것이다.

>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교법 2장 17절)

신과 인간이 조화(調化)된다 함은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고 나아가서 선천의 인간과는 다른 세로운 인간이 탄생함을 뜻한다 하겠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인간은 신의 엄격한 질서도 지니고 신의 조화도 부리는등 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행사해 나가는 극치의 인간능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때의 인간은 신격화된 인존(人尊)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다.

해원상생에서 강조되는 인간의 위상은 원(冤)을 해소한 원만한 인간이다. 선천에서 잠재되어 왔던 원망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인간사이의 억압을 조장하고 이는 나아가 인간사이의 불평등과 인권 말살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후천의 평화를 이룩하는 근본 바탕은 이러한 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호 이해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상생의 이념이 지배할 때만이 가능하다. 인간을 존종하는 정신은 바로 이러한 해원상생의 이념에서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인간사이의 윤리적 관계 또한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것과 통한다고 볼 것이다.

도통진경은 후천세계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도달하는 경지이기도 하다. 인간이 종교적 수도를 통해서 도통(道通)을 한다고 할 때 도통은 인간완성의 경지이기도 하다. 이 때 종교적 수도라고 한다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인간의 영적(靈的)인 연마와 함께 육체적인 단련도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이룩된 인간의 도통의 경지는 인간이 존엄시 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선천의 세계에는 대순종지에서 말하고 있는 도통을 볼 수 없었다.

> 어느날 상제께서 교운을 굳건히 하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계셨도다.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음으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고 하셨도다.(교운 1장 40절)

>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41절)

즉 선천에서는 도통이 나올 수 없었으므로 음해(陰害)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成事)를 이룩하지 못했으나 후천에서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통은 장차 닦은 바에 따라 모두 통하게 하여서 유불선의 도통신들과 함께 합일하여 이룩되는 인간최고의 경지를 보게 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말할 수 없이 높아지며 따라서 후천의 인간은 누구나가 다 존중받는 그러한 세계가 이룩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은 대순종지가 갖는 특질로서 인간존중의 사상을 말한 것이다. 후천은 인간의 몸으로 강세한 구천상제께서 건설하시는 것인 만큼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존중되는 도화낙원의 세계임을 재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統一指向의 思想

대순종지가 지니는 특질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는 후천의 통일문명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다. 통일은 분열의 반대말로서 선천이 후천세계로 넘어갈 때 볼 수 있는 대화합의 현상이다. 통일이 되지 못한 선천은 민족과 지역간에 문화가 틀리고 사상이 서로 엇갈려 반목 쟁투하면서 원(冤)을 쌓아 나왔던 세상이다. 하나의 이념이 지배하지 못하고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고집하다 보니 상극적인 세상에서 더 많은 분열만 조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전경에

>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공사 3장 5절)

라고 하여 선천세상이 지기가 통일되지 못했다는데 두고 있다. 지기(地氣)는 인간의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 민족의 사고방식과 이념을 지배한다. 중국과 인도가 다르고 동양과 서양이 또한 다르다. 여기에 하나의 사상을 말하게 되더라도 그 민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의 지기(地氣)가 서로 다르므로 다른 민족의 사상과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대립은 민족간의 교류에 있어서 투쟁을 불러 일으키고 따라서 원(冤)이 발생하게 된다.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는 바로 그 분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지기를 통일하는 것에 의해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신명을 조화하며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천지를 개벽하는 역사를 단행하셨다. 이로써 이룩된 후천은 어떠한 분열도 생길 수 없는 대 통일의 세계이며 대 화합의 세계인 것이다. 대순종지가 내포하고 있는 이념은 이러한 후천의 통일문명을 지향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하겠다.

대순종지 가운데 먼저 음양합덕을 살펴보면 이는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고 만들어 내는 창조의 원리이다. 음양이라는 말은 선천에서도 이미 있어왔던 말이다. 하지만 음과 양이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다 보니 서로 합덕이 되지 못하고 분덕(分德)이 되었다. 이것은 음과 양의 분열을 조장하고 나아가 대

립 투쟁을 유발시켰다. 따라서 천지공사를 거친 이후의 세계에는 음과 양이 상생의 원리에 지배되어서 서로의 덕(德)을 합하게 되고 무한한 생(生)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의 생(生)은 유익한 득(得)만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를 해치거나 특히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생산(生産)을 뜻한다. 이로써 후천은 만물이 하나의 상생으로 통일이 되고 자연과 인간이 또한 서로 이득을 주는 것으로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

신인조화의 내용에서도 통일의 이념을 발견할 수 있다. 종교의 대상이 되는 신(神)에 관한 이해는 항상 인간과 상대하여 대립되거나 주종(主從)의 관계로써 바라본다. 말하자면 인간이상의 힘을 지닌 존재로서 신(神)을 상정하고 여기에 인간의 나약한 면을 신의 힘을 빌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선천종교의 근본이 되어왔다. 따라서 신과 인간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편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후천에는 신(神)이라는 존재를 인간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크고 작건 간에 완전한 실체로 보고 인간이 그와 더불어 합치되어 인간 또한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 때는 오히려 인간이 신(神)을 부리는 경지에서 존엄시되며, 신과 인간이 합일된 새로운 인간존재로서의 신인(神人)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인존(人尊)이라고 하고 인존(人尊)은 신과 인간이 대립하지 않는 원만 통일의 경지를 말한다.

>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장 56절)

선천에서 받들어 왔던 신(神)은 각각 하늘과 땅에 임(臨)해 있으면서 권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후천은 그러한 신이 인간에게 임해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게 되니 이로써 인간의 위상이 최고로 높아진 인존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마음을 부지런히 한다는 것은 인간이 신을 담을 수 있는 근거로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며 이 마음을 통해 신이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마음을 먼저 수양하고 바르게 지님으로써 바른 신을 맞이하여 신인합일을 이룰 수 있다.

신인조화가 가능한 근거는 음양합덕에도 있다. 신과 인간은 각각 음과 양

에 비유될 수 있으며, 이때 후천의 음양합덕이 되면 신과 인간도 합덕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새로운 존재가 생(生)함으로써 이를 인존이라고 하고 신인(神人)이라고 부른다. 이는 곧 신과 인간의 통일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종교의 궁극적인 관심인 만큼 종교간의 통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해원상생에는 인간 상호간 나아가서 천지의 모든 만물간에 대 화합의 이념이 깃들어 있다. 선천의 진멸(盡滅)지경을 맞이하게 된 원인은 인간 사물간에 쌓여왔던 원(冤)때문이며 이로써 상호 반목 쟁투는 더욱 심해져 갔던 것이다. 구천상제께서 해원을 위주로 하여 천지공사를 행하심으로써 다시는 원(冤)이 맺히지 않는 세계를 이룩하시니 이는 곧 화합의 세계이며 대통일의 세계인 것이다. 인간은 서로를 위해 잘되게끔만 덕을 베풀고 자연도 인간을 위해 풍요로운 환경을 베풀어주니 그야말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地上仙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곧 해원상생이 통일의 이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도통진경은 음양합덕을 기반으로 하여 신인조화의 기강이 서고 해원상생으로 살아나가는 선경(仙境)의 세계를 표현한 말로써 통일을 지향하는 대순종지의 이념을 궁극적으로 귀결짓는 특징을 지닌다. 진리로서의 대도(大道)가 온 세계에 두루 통한 모습은 어떠한 분열이나 투쟁도 찾아볼 수가 없다. 분열과 쟁투는 하나의 도(道)를 고집하고 서로 다른 도(道)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 후천은 서로 다른 도가 아닌 같은 도를 전체세계 속에 두루 실현한 것을 말한다. 구천상제께서 강세하여 선포하신 진리는 모든 종교를 포함할 수 있고 모든 이념을 통일시킬 수 있는 대 진리(眞理)이다. 이를 세계 속에 이룩한 모습은 도가 통(通)한 참된 세계 즉 진경(眞境)인 것이다. 여기에 세계는 통일되어 있고 인간은 대 화합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

이렇게 대순종지의 내용은 후천을 이루는 사상이며 인간을 존중하고 나아가 이념의 통일, 세계의 통일을 이루는 이 시대의 새로운 사상으로 그 특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V. 結 言

이상으로 살펴본 대순종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구천상제께서 선포하신 대순진리를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천상제께서 행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를 이어서 도주님이 종단을 창설하시고 이 때 확립하신 종지 16자는 구천상제님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계승한 사상의 총체인 것이다. 종지의 내용으로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은 새로운 천지를 이끌어 나가는 가르침이자 이념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필자는 음양합덕을 천지조판으로 보았으며 신인조화는 윤리적 기강으로서 이해하고 해원상생은 새로운 사회생활로 도통진경은 이상세계로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음양합덕에서 출발하여 신인조화를 이루고 또 해원상생을 하여서 도통진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으로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연관성을 지님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대순종지 전체가 지니는 사상적 특질로서 파악하기를 후천개벽을 지향한다는 것과 인간의존엄성을 강조한다는 것 그리고 통일문명을 지향한다는 것은 선천의 종교적 종지와 차별시되는 점임을 지적하였다. 이로써 대순종지는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교사상의 요지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대순사상이 하나의 세계종교로서 이루어는 것은 그 사상이 등장하게 된 현실적인 배경과 함께 미래의 밝은 이상을 얼마나 뚜렷이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순종지는 구천상제님의 유지를 숭상하여 오늘의 시대를 개벽하고 내일의 후천세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순종지가 담고 있는 뜻을 현재와 미래의 연장선상에서 다각도로 연구해 나가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